

언론 사람

01

2021
VOL.247



04 인터뷰 人+人
원우현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

06 Newmedia of the World
뉴스에 대한 신뢰는
진실과 진심의 결합물

14 단어의 중력
기적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와일드>

- | | | | |
|-----------|--|-----------|--|
| 03 | 신년사 | 12 | 이달의 시
흰빛의 매화가 피고,
매화빛의 눈이 내리는 새해 첫날 |
| 04 | 인터뷰 人+人
원우현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 | 14 | 단어의 중력
기적 |
| 06 | Newmedia of the World
뉴스에 대한 신뢰는 진실과 진심의 결합물 | 16 | 내 마음의 활동사진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와일드> |
| 08 | 세상사는 法
뒷담화와 명예훼손 | 18 | NEWS
위원회 뉴스
위원 동정 |
| 10 | 돋보기
새해의 포부 | | |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권오근
발행일 2021년 1월 4일
등 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코비즈 T 02-2272-1400
표지 작품 김관중 <경복궁과 방패연>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년사

2021 신축년(辛丑年)

새해 신축년(辛丑年)을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는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전에 누리던 평범한 일상이 끝없이 위협받고 코와 입을 가린 마스크 없이는 사람을 대할 수 없는 답답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해에는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자유롭게 다정하게 손을 잡고 웃고 이야기하며 활동하고 생활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빌어 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성심과 열정을 다해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0%가량 증가한 3,900여 건의 언론분쟁 조정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인격권 등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인터넷 언론의 경우 시정권고결정의 수용률 60% 이상을 달성하는 등 그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제21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전달하여 인터넷상 잘못된 보도에 관한 열람차단청구권의 신설 도입과 중재부 증설 등 언론중재법 관련 개정안의 발의와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는 위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와 더불어 언론조정·중재사건과 시정권고사건 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개선해야 부분을 끊임없이 살피고 과감히 실천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는 귀와 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후임 사무총장 임명동의절차와 관련하여 상당한 갈등과 아픔을 겪은 점은 많은 아쉬움과 유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 온 뒤의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우리 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부단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소임을 다하고 한층 더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위원회가 창립된 지 4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위원회 발자취를 반추하고 그 성과를 되돌아보며 위원회가 더욱 발전하고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위원회의 모든 중재위원과 사무처 직원은 올바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힘쓰고, 열정을 불태우는 자강불식(自強不息)의 자세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바라며, 위원회 모든 가족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탄없는 충고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모두의 건강과 새해 희망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부디 새해 건승과 소원성취를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이석형

신년인터뷰

언론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고려대 언론학부 원우현 명예교수



Q 퇴직 후에도 후학을 양성하시며 기부활동도 하고 계시는데요. 적지 않은 연세에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요.

A 저도 희수(喜壽)를 지나 언제고 하늘의 부름을 받으면 소천할 나이입니다. 그러니 모든 걸 내려놓고 세상을 떠날 때를 예비하면서 살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은퇴 후 75세 나이에 오히려 소명을 받아 우연한 기회에 전혀 준비가 없던 몽골로 가게 됐습니다. 영어로 가르치는 국제학사인 몽골국제대학(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이 미디어(Media and Communication) 학부와 연구원 설립 허가를 받고 적임자를 물색하던 중이었지요. 저로서는 그 기회가 거역할 수 없는 하늘의 명령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침 저는 은퇴 후 2008년에도 KDI국제정책대학원 UCSD 초빙교수 경험이 있어서 영어로 강의를 할 수 있었고, 미디어 교육과 행정 경험이 있어서 선발 기준에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Q 한국언론법학회는 매년 언론법 연구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철우언론법상을 시상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초대 회장으로서 출연하신 기금이 바탕이 된 철우언론법상이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소회를 말씀해주신다면?

A 2002년 초를 지금 돌이켜 보면, 어느 사회에서든 제4부의 역할을 하는 언론이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법과 언론윤리의 기반이 견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컸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당시 언론학계와 법학계가 한데 어울려 학제 간 소통을 위해 언론법학회를 창립한 겁니다. 개인적 의지만으로는 어려웠을 텐데 시대적 요청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20년 전통으로 명성을 지켜온 철우언론법상은 매년 그 해의 언론 분야 발전에 기여한 연구 성과와 판례를 선정하여 수상합니다. 특히 판례의 경우 해당연도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신장에 기여한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엄선해 시상해왔습니다. 2021년 철우언론법상 20주년 기념으로 역대 수상 판례, 연구논문과 저서를 총망라하여 정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해외 판례나 이론을 수입해서 소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것도 잘되어 있습니다. 20년간 축적된 철우언론법상 수상 판례를 보면 외국 판례보다 훨씬 언론법의 쟁점이 첨예하고 언론계와 수용자 권리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진척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상 판례를 번역해 각국에 전파하면 언론법의 이론 형성과 연구에 한국의 우수 판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최근 한국 언론은 대립적인 의견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SNS 등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혐오표현이나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A 한국 언론이 정파성과 상업주의로 빠져드는 추세를 보이는 현실에서 진정한 언론자유와 창달과 언론 민주화의 구현, 그리고 언론문화와 수용자 인권을 포함한 언론복지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2002년 언론법학회 창립선언문의 취지를 다시 환기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체제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선 권력이 막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이 수시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논평함으로써 막강한 행정부·입법부의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고, 소수의견도 쟁점화하면서 언론과 권력은 길항작용을 해야 합니다. 다수당과 소수당이 정파적으로 다른 정책이나 지지 여론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정책 대립과 여론을 국가이익과 사회정의, 공정한 절차의 편에서 서서 선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 언론은 정치적·영리적 목적으로 허위조작 보도를 생산해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한 예로 국회에서도 악의적 왜곡 보도와 언론의 인권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언론 개혁이란 명목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론의 논전은 치열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못해서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공익적 차원에서 입법으로 보충하자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표현에 자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명예훼손죄 등 언론인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빈번한 현실적 특성을 간과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게 여론이란 거지요. 한국 언론이 얼마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짚어볼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Q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는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학계 원로로서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A 언론이 무엇을 보도하고 논평하는지가 수용자의 상식적인 기준과 기대를 충족시킬 때 언론의 신뢰도는 올라갈 것입니다. 미디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 할지라도 수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언론은 올바른 기준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회의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언론인 개인은 물론, 언론사도 일관성 있는 올바른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이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언론인의 소양과 자질의 향상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역사적인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개인의 생명과 기본권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직업의식도 남달리 투철해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이거나 언론인 취업 과정에서 언론윤리와 언론법을 필수 과목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정정·반론보도, 손해배상 등 기존의 제도로는 피해구제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열람·검색 차단 등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청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에 맞게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쟁점이 따르겠지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권고적 기능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정권고위원회를 강화해서 즉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미디어의 보도내용을 심의하고 해당 언론사에 재발 방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능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재위원도 뉴미디어 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있고, 사무처에도 관련 인력을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구글 등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올해는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교수님께서도 1993년 중재위원을 역임하셨는데요.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출발했습니다. 보도에 의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언론중재위 절차를 이용해 해결된 피해구제 건수가 법원소송으로 언론피해를 구제한 건수보다 9배가 많을 정도로 존재감을 지켜왔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는 상호 갈등하던 언론과 시민의 통합에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지난 40년의 실적을 분석해 효율적인 기본 모델을 개발할 필요도 있지요. 그 모델을 피해구제 상담에도 적극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정보도, 반론보도는 물론 손해배상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조정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늘리고 증거조사도 더 심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사무총장 임기 단임제와 내부승진 우선권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디지털 미디어 분야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게 디지털 미디어 전담부서를 증편하고 위원회의 특성을 살려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NEWS

뉴스에 대한 신뢰는 진실과 진심의 결합물



참고문헌

- 정수영 (2015). 공감과 연민, 그리고 정동 (affect): 저널리즘 분석과 비평의 외연 확장을 위한 시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11(4), 38-76.
- Coleman, S., Morrison, D. E., & Anthony, S. (2012). A constructivist study of trust in the news. Journalism Studies, 13(1), 37-53.
- Walter, N., Cohen, J., Holbert, R. L., & Morag, Y. (2020). Fact-checking: A meta-analysis of what works and for whom. Political Communication, 37(3), 350-375.

새해는 과제와 도전의 다른 말이다. 사람들은 매해 첫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소원을 빌고, 목표를 떠올리며 다짐을 가슴에 새긴다. 도전 의식을 되살려 달성의 의지를 불태운다. 우리가 반복해온 정초의 풍경이다.

올해 뉴스 산업은 신뢰의 재구축을 도전 과제로 세울 필요가 있다. 바닥으로 질주하는 뉴스 신뢰의 기초를 다시금 다지지 못하면, 디지털 구독이라는 지속가능성과 플랫폼 독립의 성취는 적기를 잃게 될 수도 있다. 디지털 구독은 신뢰 위에서만 작동한다. 플랫폼으로부터 독립은 수익 종속성의 탈피로부터 비롯된다. 구글, 페이스북의 목줄을 조여가는 반독점법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¹⁾, 포스트-빅테크 시대의 뉴스 주도권이 전통적 주체들에게 되돌아올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따라서 신뢰의 회복이든 재구성이든 2021년은 이 도전 과제를 소원으로 삼아 과감한 결행을 해야만 한다.

지난해 말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펴낸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알고 싶어하는 것: 변화하는 세계에서 뉴스 신뢰에 대한 관점들’이라는 보고서²⁾는 뉴스 신뢰 제고를 위한 실행 전술 구상에 적잖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그중 으뜸은 수용자의 뉴스 신뢰는 ‘뉴스룸의 노력’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규범과 관행을 바꾸면 독자들이 신뢰해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곤 한다. 출입처를 폐지하고 사실 확인의 정도를 제고하며 투명성을 강화하고 탐사 보도를 확대하면 신뢰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는 ‘절반의 사실’이다. 당파성에 강하게 젖어든 수용자 그룹은 뉴스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이 선호하는 팩트를 어떤 언론사가 보도하느냐에 따라 다른 태도를 취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팩트체크 기사라 하더라도 어느 언론사가 보도하느냐에 따라 수용자들의 인식과 평가는 극단으로 갈린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감시견 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나 일부 수용자들은 “정떨어지게 해롭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최근 포항MBC의 탐사다큐멘터리에 지역 포스코 노동조합이 보인 태도가 이를 근거한다³⁾.

또한 소셜미디어에서 잠시 잠깐 뉴스를 소비하고 공유하는 이들에겐 저널리즘의 고착화한 관행 개선 따위는 주된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 언

론사가 저널리즘을 향해 어떤 노력을 경주하든 그것이 이들 뉴스 소비층에 전달될 리 만무하며, 따라서 뉴스 신뢰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어렵다. 뉴스 소비의 빈도와 강도에 따라 그 효과가 차별적일 수밖에 없어서다. 그만큼 뉴스에 대한 신뢰 재구성은 까다롭고 복잡하며 난해하기까지 하다.

신뢰는 저널리즘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이긴 하나 감성의 문제요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관습과 선입견의 문제다. 그만큼 획기적인 접근법으로 신뢰를 사유하지 않으면 뉴스 신뢰를 높이는 작업은 지난해처럼 공허하게 마감될 수 있다. 팩트체크의 저널리즘 신뢰 제고 효과가 기존의 신념이나 이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더욱 그렇다(Walter et al, 2020).

그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이 ‘수용자와의 감성 및 관계’ 재설정을 통한 신뢰 제고다. 정수영(2015)은 “합리성과 이성을 준거 틀로 하는 저널리즘 분석과 비평만으로는 규범과 실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의 원인과 본질 규명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며 ‘감성공론장’을 제안한 바 있고, 콜만 등(Coleman et al, 2014)은 “언론 자체에 대한 신뢰가 저널리즘 정확성에 대한 신뢰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언론사 브랜드를 중심으로 놓고 수용자들과 감성적 매개 방식을 활용해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천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구독, 기부 기반의 독자 수익 모델로 전환하면서 다수의 해외 언론사들이 온·오프라인 수용자 커뮤니티 구축과 관리에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대안은 앞선 논의와 저널리즘적 해결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이 깔려있다. 그것이 유튜브들과 같은 1인 크레이터와의 차별 지점이다.

이제 뉴스 신뢰는 진실과 진심의 결합물이 됐다.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수용자들의 궁금증에 ‘진심과 진정성을 담아’ 답하는 것, 그것이 어찌면 저널리즘의 원칙과 신뢰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한다. 새해는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한 뉴스 산업 종사자 모두의 소원이 반드시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갈망한다.

1) <https://www.wsj.com/articles/facebook-google-to-face-new-antitrust-suits-in-u-s-11606742163>

2)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what-we-think-we-know-and-what-we-want-know-perspectives-trust-news-changing-world?fbclid=IwAR0erHqH3h7VS9fRQrbR-tZxZXRWJl81wqZ7xikt_NljGOkU58PIDetd4

3)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8613>

뒷담화와 명예훼손

#!&%!



옥스퍼드대학교 진화인류학과 교수로 인간 행동의 진화론적 기원에 대해 연구하는 로빈 던바는 그의 저서 <던바의 수>에서 '힘담'이 인류의 결속력을 강화해주는 하나의 수단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태초에 원숭이나 유인원 사회에서는 서로의 털을 골라주며 구성원 상호 간에 신뢰를 쌓고 이것이 좋은 기분으로 이어져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주었지만, 진화의 특정 단계에 이르러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서 털 고르기는 일대일로 이루어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집단을 하나로 묶어줄 다른 대안을 생각해낼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 중 하나가 바로 '힘담'이었다는 것이다. 유발 하라리도 '뒷담화'는 악의적인 능력이지만 많은 숫자가 모여 협동을 하려면 사실상 필요하다'라고 한 바 있다. 힘담의 실용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대학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이야기를 나눈 그룹이 긍정적 이야기를 나눈 그룹에 비해 심리적으로 서로를 더 가깝게 느끼는 사실을 알아냈고, 네덜란드 호로닝언 대학 연구진은 나쁜 소문을 들은 사람은 이후 스스로 사회 규범을 의식하고 행동을 수정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보면 '뒷담화'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자연스럽고 필요한 행동이면서, 실용적인 효용 가치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뒷담화가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진입하는 순간에 발생한다. 지금처럼 명예훼손 죄를 유지할 것이라면 적어도 사회 구성원이 헛갈리지 않기 위해서, 뒷담화에서 명예훼손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지금부터는 처벌이 가능한 명예훼손입니다'라는 분명한 표지판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몇 년 전, 유명 야구선수가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유명한) 주변 지인들 힘담을 했다. 이후 그 선수와 여자친구는 좋지 않게 헤어졌다. 그러자 전 여자친구는 야구선수가 나쁜 사람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제 당시 자신에게 보낸 갖가지 힘담 문자를 캡처해서 자신의 SNS에 올렸다. 힘담을 한 사람도, 힘담을 당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이는 순식간에 퍼졌다. 힘담을 당한 사람은 당연히 큰 피해를 보았고, (아마도 이를 간과할 수 없었던) 법원은 야구선수와 전 여자친구에게 명예훼손 유죄를 선고했다.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힘담 문자를 보낸 행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일단 결과적인 측면에서 야구선수는 힘담의 대상이 된 피해자에게 백배사죄해야 한다. 그런데 그의 행동만 놓고 보자. 교제 중인 사람에게 지인을 힘담하는 카카오톡을 보낸 것이, 이것이 형사적으로 유죄가 될 만한 행동인지는 잘 모르겠다.

몇 년 전 일을 꺼내본 이유는 얼마 전에 명예훼손죄에 대한 상당히 긴 분량의 대법원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이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연히’란 사전적으로는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뽐뽐하게’, ‘숨김이나 거리낌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라는 뜻이고, 법률적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과연 어떤 상태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에 대해 판례는 ‘전파가능성설’을 취한다. 즉,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인 경우에도 ‘그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만 하면 공연성을 인정한다. 판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판결 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이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판결 등)’하겠다고 한다. 전파 여부를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고려하겠지만, 공연성을 인정할 때는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하겠다는 것인데, 아리송하다. 어쨌거나 지금까지의 판례의 입장이고,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법원 반대의견은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의견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고 본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공연성을 정한 입법 취지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 가운데 사적인 대화나 정보전달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한정하여 처벌’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아까의 야구선수 사건을 보면,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공개된 SNS에 험담을 전한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만, 교제 중인 여자친구에게 일대일 카카오톡을 한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게 한 행위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판례 입장인 전파가능성설에 따른다고 해도, 여자친구에게 일대일 카카오톡을 한 행위에 대해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형사적인 유죄는 아닌 것 같다. 교제하는 사이에서 이루어진 험담

까지 전파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되도록 입을 닫고 살아야 한다. 교제하다 헤어지고 나면 상대방 휴대폰을 입수하여 문제될 만한 것을 삭제하지 않으면 재판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뒷담화는 묘한 속성이 있다. 가령 상해나 성희롱, 절도에 대해서는 금지라는 명제를 세우기가 간단하다. 하지만 뒷담화는 말의 속성상 이렇듯 무조건 금지시킬 수가 없다. 대법원 반대의견은 “사람은 말을 하면서 타인과 교류하고 사회성을 키워간다.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말할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권리이다.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처럼 말은 그 자체로 전파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타인에 대한 말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전파가능성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에 맞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협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위와 같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고려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숨 쉴 공간을 마련해두기 위한 것이다. 개인들의 사적 대화까지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뒷담화와 명예훼손을 가르는 ‘공연성’에 대해 자꾸만 생각해볼게 된다.



새해의 포부

망악(望嶽)
태산을 바라보다

당(唐) 두보(杜甫, 712-770)

岱宗夫如何? 대종부여하
태산은 대체 어떠한가?

齊魯青未了. 제로청미료
제나라와 노나라로 푸르름이 끝나지 않는다.

造化鍾神秀, 조화종신수
조물주는 신묘함과 빼어남을 모아 놓았고

陰陽割昏曉. 음양할흔효
산의 북쪽과 남쪽은 어둠과 밝음을 갈랐다.

盪胸生曾雲, 탕흉생증운
가슴을 씻어 주는 뭉게구름이 이는데

決眚入歸鳥. 결자입귀조
눈을 크게 뜨니 둥지로 돌아가는 새들이 눈에 들어온다.

會當凌絕頂, 회당릉절정
언젠가 반드시 정상에 올라

一覽衆山小. 일람중산소
한번 못 산들이 작음을 내려다보리라.

대종(岱宗) 태산(泰山)의 별칭이다. 중국의 다섯 명산인 오악(五嶽) 가운데 으뜸이라는 뜻에서 '종(宗)'자를 붙였다. 지금의 산둥성 태안시(泰安市)에 있다.

제로(齊魯) 춘추시대 태산의 북쪽에는 제나라가, 남쪽에는 노나라가 있었다.

종(鍾) 모으다.

음양(陰陽) 음(陰)은 산의 북쪽을, 양(陽)은 산의 남쪽을 가리킨다.

증운(曾雲) 뭉게구름. '증(曾)'은 '층(層)'과 통용되는 글자이다.

결자(決眚) 눈가가 찢어질 듯이 눈을 크게 뜨다. '자(眚)'는 눈가, 눈초리이다.

두보가 젊은 시절에 지냈던 포부와 기백을 잘 보여주는 시이다. 두보는 23세에 과거에 낙방하고 24세에 산동 지역을 유람했다. 이 시는 이때 태산을 지나며 지은 시로, 두보가 남긴 1400여 수 가운데 가장 이른 나이의 작품이다. 청(淸) 포기룡(浦起龍)은 《독두심해讀杜心解》라는 책에서, 이 시를 두보의 시 가운데 최고의 시라고 칭송했다. 두시가 중국 한시의 최고봉임을 고려한다면, 이는 중국 한시 가운데 최고의 시라는 평이 된다. 가장 이른 나이에 지어진 시가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놀랍다.

두보는 이 시에서 태산의 정상에 올라 눈 아래 못 산들이 작음을 보겠다는 포부를 설파했는데, 그 상징적 의미가 깊다. 두보의 다른 시나 두보 관련 역사적 자료에는 그가 태산의 정상에 오르거나, 다시 태산을 읊은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현실적인 면에서 '일람중산소'를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상징적인 면에서 그는 그 포부를 이뤘다. 그가 중국문학사에서 '시성(詩聖)'으로 칭송되고 있듯이, 중국 한시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것이 그것이다.

중국인들은 두 가지 면에서 태산을 숭배한다. 첫째로, 태산의 정상은 하늘과 가장 가깝다고 여겨졌고, 또 시작을 의미하는 동쪽의 산이라서 역대 제왕들은 이곳에 올라 천신(天神)에게 제사를 올렸다. 그 제사를 봉선제(封禪祭)라고 했다. 천신의 아들인 천자(天子)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천신에게 등극의 소식을 아뢰고 보살핌을 축원한 것이다. 여기에 차츰 도교적 색채가 가미되면서 천신은 옥황상제(玉皇上帝)로 묘사되었고 태산의 정상에는 옥황상제를 모시는 옥황묘(玉皇廟)가 세워졌다. 중국인들에게는 옥황묘에 올라 옥황상제를 참배하면 10년의 수명이 더해진다는 속설이 있다. 옥황상제가 인간의 수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옛 성현들이나 문인들이 태산을 언급하고 칭송한 내용이 많이 전해진 것이다. 《맹자·진심상(盡心上)》에, “공자는 동산에 올라 노나라를 작게 여겼고,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게 여겼다.(孔子, 登

東山而小魯, 登泰山而小天下.)”라고 했다. 두보가 이 시에서 밝힌 포부는 맹자의 이 언급이 그 모티브이다. 큰 포부를 지니고 노력하여 큰일을 이루고, 결과적으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이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번뿐인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아야 할 것이다. 필자의 주관으로는, 보람 있는 삶이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다. 그 방법은 두보가 자신의 분야에서 이룬 것처럼, 각자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두보는 이 시에서 밝힌 포부처럼 한시의 최고봉에 올라 후대에 문학적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필자는 여러 인연으로 태산을 7, 8회 정도 등정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내린 적도 있고 걸어서 오르내린 적도 있다. 두보처럼 언젠가 한 번쯤은 오르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여러 차례 올랐다. 태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꽤나 친밀하고 익숙하다. 태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조선 전기의 양사언(楊士彦)이 남긴 '태산이 높다하되'로 시작하는 시조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뜻이 있으면 오를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굳은 의지가 있으면 해낼 수 있다는 교훈이다.

새해가 밝아 왔다. 여러 가지로 심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간다면, 그때그때의 형편에 이끌려 지내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있을 것이다.

나이가 1년의 계획을 넘어 전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구상하는 좌우명(座右銘)을 정하는 연초가 되기를 권한다. 좌우명은 '자리의 우측에 써놓은 글'이라는 뜻으로, 우(右)자에 친절한 의미가 있다. 사람들은 대개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쪽으로 먼저 손이 가고 눈이 간다. 일상에서 가까이 접하면서 항상 마음을 다지라는 의미이다. 필생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게 하는 좌우명이 있다면 훨씬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흰빛의 매화가 피고, 매화빛의 눈이 내리는 새해 첫날



매화

김중길

해마다 새해가 되면
매화분엔 어김없이 매화가 핀다.
올해는 바로 초하룻날 첫 송이가
터진다.

새해가 온 것을 알기라도 한 듯,
무슨 약속을 지키기라도 하듯,
설날에 피어난 하얀 꽃송이!

말라 죽은 것만 같은 검은 밀둥걸,
메마르고 가냘픈 잔가지들이
아직 살아 있었노라고,

살아 있는 한 저버릴 수 없는 것을
잊지 않았노라고, 잊지 않았노라고,
매화는 어김없이 피어나는데,

밖에선 눈이 내리고 있다.
매화가 핀 것을 알기라도 한 듯,
밖에선 매화빛 눈이 내리고 있다.

-<달맞이꽃>(민음사, 1997)에서





지구별의 78억 인류가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새해는 남다른 해입니다. 새해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오는 것임을 실감한 한 해였습니다.

이런 금년 새해의 남다른 기억하며 김종길(1926~2017) 시인의 시 <매화>를 읽어봅니다. 매화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라는 이른바 사군자(四君子)의 첫 자리에 놓여 있는 꽃으로서 희망과 탄생, 생성과 움튼의 상징입니다.

실로 매화꽃은 그 자신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새해가 되면 서둘러 꽃망울을 터뜨리는 꽃입니다. 청매화, 홍매화, 백매화 등의 색에 따른 이름을 가진 꽃들이, 조매(早梅), 동매(冬梅), 설중매(雪中梅) 등의 시기에 따른 이름을 수반하면서 차갑고 무거운 겨울날의 한기를 뚫고 화사하게 피어납니다.

김종길 시인은 <매화>에서 먼저 해마다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매화꽃의 한결같은 개화의 울동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한 그해엔 특별히 새해 가운데서도 '첫날'에 매화꽃이 첫 송이를 터뜨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새해의 첫날에 첫 송이가 피어난다는 것은 그에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하나의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을 두고 시인은 여러 가지 즐거운 상상을 해 봅니다. 그 상상의 내용은 아마도 새해가 온 것을 매화가 안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화가 새해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러할까요? 매화는 그저 매화의 내적 질서에 따라 새해인 줄도, 새해의 첫날인 줄도 모르고, 모르는 채로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이겠지요.

그러나 김종길 시인은 매화의 이와 같은 '무위(無爲)의 길' 위에 아름다운 '유위(有爲)의 길'을 더합니다. 매화꽃은 그냥 새해에, 그것도 새해의 첫날에 첫 송이를 피워낸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무엇인가 우주적이며 인간적인 의미가 들어 있는 것만 같다

는 생각입니다. 모를 일이지요? 우주를 운행하는 거대한 힘과 숭고한 뜻이 있다면 매화꽃이 이 땅에 피어나는 일 하나에도 알 수 없는 그 힘과 뜻이 내재해 있겠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에 도달하게 되면 우주 만유의 움직임에서 신성한 비의를 봅니다. 이 세상의 움직임은 함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뜻과 신성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지 모르지요. 다만 우리의 어두운 눈과 단견이 문제일 뿐인 것이지요.

김종길 시인은 이런 매화의 개화에 대한 사색과 더불어 그 매화나무의 죽은 것만 같은 겨울날의 밀동걸과 메마르고 가냘픈 잔가지가 실은 살아있는 것임을 전합니다. 여기서는 그 살아있음의 소식이 매화꽃의 개화로 나타납니다. 시인은 이런 매화를 보고 생명의 웅숭깊은 안쪽을 봅니다. 생명의 일은 그렇게 단순하고 표면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묵고 마른 나무에서 꽃이 피는 일! 살아 있다면 피할 길 없이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 그 일은 난해하고 고단하지만 신비롭고 아름답다는 것! 이런 것들을 시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길 시인의 <매화>에서 특별히 마지막 연은 시의 품격을 드높입니다. 새해 첫날에 매화꽃의 첫 송이가 피었는데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화빛'의 눈이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자 풍경이야말로 드문 우연인 것 같지만 실은 잦은 필연에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새해가 되고, 첫날이 오고, 매화의 첫 송이가 벋글고, 매화빛의 눈발이 밖에서 내리는 이 광경은 진정 상서롭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들의 새해가 이와 같이 상서롭고 아름다운 광경과 함께 멋지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기 적



해발 3,210미터, 안나푸르나 푼힐의 표지판

새벽 네 시에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침낭의 지퍼를 열자 허공을 맴돌던 차가운 공기가 기다렸다는 듯 너를 감싸 안는다. 어둠을 더듬어 문을 여니 사슴처럼 초롱한 눈망울의 소년이 서 있다. 5박6일의 안나푸르나 트레킹 일정 내내 너의 배낭을 짊어지고 다니는 포터 잔부이다. 잔부는 싱긋 웃으며 호롱불을 들어 보인다. 산을 올라갈 시간이니 어서 나오라는 뜻이다.

아아, 귀찮아, 해가 뜨는 걸 꼭 봐야 하나. 굳이 안 봐도 매일 뜨는데.

너는 투덜거리지만, 푼힐 정상에 해돋이는 이번 트레킹의 하이라이트이다.

여행을 시작한 지 나흘째 되는 날, 너는 안나푸르나에 있는 마을 고라 파니에 도착했다. 해발 2,853미터에 자리 잡은 그 마을은 온통 눈 덮인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발전기로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저녁 일곱 시 이후에는 촛불에 의지해야 하는 날도 흔하다. 나무판으로 대충 칸만 나뉜 작은 방, 딱딱한 나무 침대 위에 침낭을 깔고 너는 잠을 잤다. 가파른 경사가 이어지는 울레리를 지나오느라 쌓인 피로가 온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게 당연하다.

너는 무거운 몸을 추스려 생수와 카메라를 챙기고 밖으로 나온다. 미적미적 내키지 않던 마음은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경이로 가득찬다. 전 날은 꾸물꾸물 흐렸는데, 밤 사이 구름이 걷히고 깨끗 같은 별들이 하늘 가득 넘치고 있다. 발아래 한 번 보고 하늘 한 번 보며 정상을 향해 걸어가는데, 막 잠에서 깨어난 트레커들이 하나둘 합류하더니 정상까지 긴 행렬이 이어진다. 숨이 가빠도 걸음을 멈출 수가 없다.

앞서 오르던 사람들이 점점이 흩어지나 싶더니 해발 3,210미터 푼힐의 표지판이 보인다. 김민기의 노랫말처럼, 네가 오른 봉우리는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봉우리 너머 봉우리, 그 너머 더 많은 봉우리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어느새 별들이 깜박깜박 꺼지고 가장 높은 산의 봉우리가 푸른빛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너는 온 힘을 다해 불쑥 솟아올라 어둠을 물리치는 해를 목격한다. 네가 살아가야 할 하루가 네 앞에 활짝 열리는 순간이, 심장 깊이 각인된다. 그것은 매일 일어나는 기적, 그러나 네가 돌보지 않았던 기적이다.

산을 내려오는 너의 걸음이 휘청이는 건, 알알이 박힌 피로 때문만은 아니다. 네가 묵도한, 너에게 그토록 사소했던 기적의 무게로 인해 너는 까마득하고 아득해진다. 너의 뺨은 홍조를 띠고 너의 눈에는 눈물방울이 살며시 매달려 있다. 눈물을 닦기 위해 잠깐 걸음을 멈춘 네 앞에 묘지 하나가 서 있다.

‘내가 낡은 곳에 이를 때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안녕이라는 말은 영원히 하지 않겠습니다.’

묘비명에 쓰인 글귀가 말랑해진 너의 마음 깊이 꽃힌다. 1999년, 부부가 나란히 등반을 하던 중, 아내가 고산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푼힐로 올라가던 도중이었다. 아내가 쓰러진 자리에 세워진 묘비는 매일 새벽, 기적을 맞이하러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기특할 기(奇)는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클 대(大)에 곡괭이와 입을 함께 그린 옴을 가(可)를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곡괭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기이하다’, 혹은 곡괭이를 들고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기특하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발자취 적(跡)은 발 족(足)과 또 역(亦)이 만나 만들어졌다. 역은 사람의 거드랑이를 뜻하는 지사문자(사물의 추상적 개념을 본떠서 낱말을 뜻을 나타내는 문자)로, 액취 즉 사람의 몸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를 의미한다. 이것이 발 족을 만나 ‘발의 흔적’, 즉 누군가가 남긴 표지 혹은 자리라는 의미가 되었다.

‘기적’을 이루는 두 글자 모두 사람을 품고 있다. 그러니 기적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나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걸어간 곳에서 태어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양이고 형편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면 하루가 저물고 또 하루가 오는 일, 하루를 살기 위해 네가 아침마다 눈을 뜨는 일, 때로 부주의하고 때로 불친절한 너를 견디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일,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여 쓰러진 몸을 일으키고 무너진 마음을 다독이는 일이 모두 기적이다. 기억하지 않아도, 돌보지 않아도 묵묵히 일어나는, 가려한 기적이다.



푼힐로 가는 길에 서 있는 묘비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와일드>

*영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이드'(Strayed). 남편과 이혼하면서 새로 성을 정해야 하는 '세릴'(리즈 위더스푼)은 전화번호부를 뒤져 하필 '방향하다', '길을 잃다'라는 의미의 '스트레이드'라는 성을 고른다. 삶의 전부라고 할 만큼 사랑했던 엄마를 병으로 잃고, 남자와 약에 빠져 살던 세릴에게 '스트레이드'만큼 딱 맞는 이름도 없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세릴은 이혼을 계기로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를 정비하기로 결심한다.

이제 겨우 스물여섯, 세릴에게는 지나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세 배쯤 많다. 세릴이 도전한 PCT는 멕시코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을 잇는 4,285Km의 도보여행 코스다. 엄청난 거리가 예고하듯 이 고단한 여행에는 체력은 물론이요, 인내심과 자신감, 낙천성 등이 무한대로 필요하다. 무엇보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다면 끝내지 못할 거리다.

'와일드'(장 마크 발레, 2014)는 94일간 PCT를 걸었던 세릴 스트레이드의 자전적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영화는 험난한 지형과 야생 동물의 출현, 날씨의 방해로 뚫고 한 발자국씩 전진하는 세릴의 여정 속에 종종 그녀의 과거를 삽입시킨다. 주로 엄마, '바비'(로라 던)와의 관계가 담겨 있는 회상신들이 왜 그녀가 스스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바비는 세릴이 어렸을

때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고, 어릴 때 교육을 받지 못해 웨이트리스를 하면서 딸과 함께 학교에 다닌다. 그녀의 삶은 한 마디로 가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머리가 커버린 딸이 자신을 무시할 때도, 철없는 아들이 어리광만 피워대도 그녀는 늘 웃는 얼굴로 틈날 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이처럼 현명한 어머니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바비가 암에 걸려 급속도로 쇠약해지고, 곧 임종까지 맞이하게 되자 세릴은 완전히 길을 잃고 만다(Strayed). 꿈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마약에 탐닉하면서 그녀의 삶은 건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이 엄마가 딸에게 가장 바라지 않았던 구렁텅이임은 확실하다.

'와일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스스로를 망가뜨렸던 한 사람이 천천히 회복해가는 이야기다. 세릴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기 위해 선택한 PCT는 사실, 무모하고 불가능해 보인다. 출발하기도 전에 야생 캠핑에 필요한 온갖 물품을 넣은 배낭부터 문제다.

이후 여행객들이 '몬스터'(괴물)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거대하고 무거운 이 배낭은 그녀가 밑바닥부터 쌓아놓은 마음의 짐과도 같다. 처음에 세릴은 그 무게와 부피를 버티지 못해 배낭에 갈

리고 만다. 그러나 하루하루 육체와의 사투 끝에 160Km의 사막을 건너 도착한 휴게소에서 세릴은 도움을 받아 짐을 덜어내는 방법을 배운다.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줄이고, 태우면서 그녀의 발걸음도 조금씩 가벼워진다. 특히, 휴게소 주인이 두꺼운 PCT 가이드북에서 이미 온 길에 대한 부분을 찢어내는 장면은 의미심장하다. 매일 수십 킬로미터씩 걸으면서도 엄마와의 추억과 자신의 과오를 되새김질하는 세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나간 일들을 내려놓고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릴은 94일간의 지난한 여정을 마치며 비로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다. 돈도 없고,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없지만 이제 그녀는 무슨 일이든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충만하다.

2020년은 국경 없는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었다. 사상 초유의 바이러스로 인해 혹자는 병으로 아파했고, 혹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아야 했으며, 혹자는 2주씩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답답함을 겪었다.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었고, 감봉을 당했고, 가게를

닫았다.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가족을 만날 자유조차 누리지 못한 채 숨죽이며 산지도 1년이 다 돼간다. PCT처럼 끝이 정해진 싸움이라는 보장도 없어서,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룬 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제야의 종소리 없이 맞이한 새해에 희망의 빛을 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와일드'는 세릴만큼 만신창이가 된 당신도 반드시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직 컴컴하지만 여명을 기다리며 다시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운동화 끈을 매야 한다고. 이것은 그저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공허한 메시지와는 다르다. 팬데믹 앞의 무기력증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배낭 하나도 짊어지지 못했던 세릴이 PCT를 혼자서 끝까지 걸었던 것처럼, 믿어야 하지 않을까. 기적은 내 안에 있음을.

“일출과 일몰은 매일 있으니깐 네가 맘만 먹으면 볼 수 있어.
너도 아름다움의 길에 들어설 수 있어.” (바비가 세릴에게)



위원회 뉴스

위원회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토론회 개최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12월 17일 위원회 6층 강의실에서 <언론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따른 법적·실무적 쟁점 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언론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발제했다. 박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언론전담),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준현 변호사(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장),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장(변호사)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 촬영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토론회 주요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처 인사(2021. 1. 1.자)

구분	성명	내용
전보	조남태	교육본부 본부장
	이수종	심의실 심의실장
	최영훈	감사관
	양재규	운영본부 기획팀장
	최승민	운영본부 예산회계팀장
	남승균	운영본부 총무팀장
	강현석	조정부부 접수상담팀장
	안백수	교육본부 교육팀장
	이홍길	교육본부 연구팀장
	여운규	교육본부 홍보팀장
	윤치경	심의실 심의2팀장

계간 <언론중재> 겨울호 발간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12월 31일 계간지 「언론중재」 겨울호(통권 157호)를 발간했다. <Focus on Media>의 대주제는 ‘논란의 알고리즘, 신뢰할 수 있을까’로 이상직 AI-지식재산특별전문위원장의 「SI알고리즘과 가치중립성 확보 방안」 등의 기고가 수록되었다.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2호 발간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12월 31일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디지털시대 ‘알권리’와 ‘인격권’의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을 대주제로 공모한 기획논문 3편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를 담은 연구논문 2편이 수록됐다.

구분	성명	내용
전보	손정배	광주사무소장
	박은영	경기사무소장
	최명진	운영본부 전문위원(국방대 파견예정)
	이진숙	교육본부 전문위원
	권영민	운영본부 예산회계팀 차장
	김정민	교육본부 홍보팀 차장
	박진규	운영본부 예산회계팀
	이윤정	조정부부 조사1팀
	이진영	조정부부 조사1팀
	염아영	심의실 심의2팀
	이예찬	감사관실

위원 동정

신임 중재위원 위촉

12월 15일자로 중재위원 11명(서울 7명, 지역 4명)이 위촉되었다.

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임기
서울제2중재부	차성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	2020.12.15.~2023.12.14.
	우진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금교수	
서울제5중재부	왕미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서울제6중재부	박지형	(전)EBS 부사장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서울제8중재부	손수호	(전)국민일보 논설위원	
부산중재부	이범수	(전)동아대 교수	
대구중재부	최미화	(전)매일신문 논설실장	
충북중재부	김연수	법무법인 연승 대표 변호사	
전북중재부	김경아	전북대 행정학과 부교수	

중재부장 대행 지명

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임기
서울제2중재부	이장희	법무법인 송담 대표 변호사	2020.12.15.~2021.8.31.
서울제5중재부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변호사	2020.12.15.~2023.3.30.
서울제6중재부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0.12.15.~2023.12.14.
충북중재부	류성용	법무법인 청풍로펌 변호사	2020.12.15.~2021.8.31.



언론중재위원회가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 블로그 pacblog.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pacnews

| 카카오톡 채널 pf.kakao.com/_rthxiu

